
편집인 인사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시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들 사이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20년 12월부터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제 2권을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2권의 주제는 “전통공예의 창의적 전승과 산업화”입니다. 우리는 제 2권에서 이 주제에 관한 5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중 몇 편은 2021년 6월 23일 진주시에서 열린 창의도시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은 새롭게 투고된 것입니다.

나는 르나테 브리우스 박사님과 아츠코 마에다 박사님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 저널에 참여해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저널의 대담 섹션에서 우리는 공예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친화적인 공예의 이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대담의 주제를 “공예와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7 명의 학자들, 실비아 아만(인포렐라이스 대표), 르나테 브리우스(포랄베르크 응용과학대학 교수), 문선옥(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위티아 피통나푸(수코타이 UCCN 포칼포인트), 다르마 푸트라(우다야나 대학 교수), 카주코 토다테(아니치 예술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담의 주제에 대해서 폭넓은 답변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국내외 편집위원들과 우리 네트워크의 창의도시

포칼포인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7개 도시들이 그 도시들의 문화유산과 활동에 관한 원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진주시도 2021년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 동안 개최되었던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원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벤트에는 12개 창의도시로부터 13분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저널에는 서평 섹션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창의도시와 관련된 최근의 출판물에 대한 서평을 해주신 제이트 민티씨와 전진성씨, 이천의 도예 문화에 대해서 기고해 주신 이천시의 이태호씨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저널이 도시들 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도시들의 스토리, 연구와 경험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저널이 국제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UCCN 미션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동편집위원장인 사사키 마사유키 선생님의 지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 저널을 간행하는 데 재정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정병훈
편집위원장